

## 용서와 평화 그리고 십자가

라영환(개신대학원대학교)

오스 기니스(Os Guinness)는 그의 책 *Fit Bodies, Fat Mind*에서 현대 교회의 문제점을 통찰력 있게 지적한다. 그는 교회 안에 만연한 실용주의를 지적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설교와 교육이 대중적이고 실리주의적인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나아가 그는 교회가 개인의 경건에 치중함으로써 교회의 사회에 대한 공적인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한다. 오스 기니스의 지적과 같이 한국교회는 사회적이며 공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제도와 유기체로서의 자기 인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사회변혁을 위한 공적사명을 감당할 만한 역량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여진다. 한국교회는 그 동안의 지성적 흐름에서 제외된 계토에서 벗어나 복음의 진리성을 가지고 지성사회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아마도 금번 기독교학문학회에서 "기독지성 한국사회를 말한다"라는 포럼을 기획한 것도 우리가 가진 진리를 가지고 지성사회에 나아가 이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복음을 제시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

교회는 타자를 위한 공동체이다. 교회가 타자를 위한 공동체라는 말속에는 기독교의 보편성과 특수성이 함께담겨져 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한자가 아니나 이 세상에 속한 자이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 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음 같이 저희도 세상에속하지 아니하였삽나이다" (요 17:11-16)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문 속에는기독교 공동체의 세상과의 역설적 관계가 잘 드러난다. 기독교 공동체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다르다. 세상과 다르다는 이 특수성이 기독교 공동체의 특징이다. 그러나 또한 기독교 공동체는 단지 이 세상 속에서 특수한 공동체로 남아있지 않는다. 기독교 공동체는 특수성에서 출발하여 보편성으로 확장하여야 한다. 세상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이 역설(paradox)이 우리의 정체성 (identity)의 토대이다.

"한국교회는 한국사회에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의 시도이다. 본 논문은 기독지성이 한국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줄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용서와 화해의 문화 형성의 토대로써 기독교 복음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오늘날 우리 민족이 해결하여야 할 가장 커다란 과제 가운데 하나가 '화해'라고 생각을 한다. 지역과 지역사이, 계층과 계층사이, 남과 북, 한국과 일본 나아가 동북아 사이의 화해가 앞으로 우리 사회를 뒤흔들 주요한 주제가 될 것이다. 민족의 화해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며 또한 기회이다.

지금 세계는 끊임없는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가고 있는 듯이 보여진다. 아프리카와 동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종간의 갈등, 9월 11일 테러이후 증폭되어 가고 있는 이슬람과 기독교 사이의 갈등, 그리고 역사청산으로 인해 동북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에 관한 기사가 지면을 가득채우고 있다. 한국사회 안에서도 지역과 지역사이에, 계층과 계층사이에 갈등이 끊이지않고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종식시키고 용서와 화해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어떤 사람들은 화해의 선결조건으로 정의(justice)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정의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해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정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화해가 가능하다는 논리는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게 보인다. 그것은 먼저 정의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팔레스타인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간의 갈등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들은 각각 자신들의 행위가 상대방의 부정의함(injustice)에 대한 정의(justice)의 표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에 대한 추구는 상대방에게 또 다른 정의의 추구의 근거를 제공할수 밖에 없다. 한 쪽의 정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상대방이 그 정의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하는 가정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면에서 정의를 추구하는 시도들은 어쩔 수없이 또 다른 부정의함(injustice)을 만들 수 밖에 없다는 니체(Nietzsche)의 주장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Friedrich Nietzsche, *Human, All Too Human*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96), 216.

그러면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정의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인가? 카이로스 문서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상황 속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불공정함이 제거되지 않고 화해와 평화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 기독교적인 행위이다. 그러한 주장은 대부분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현재 그들이 당하고 있는 억압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무지 참을 수 없는 죄악들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화해가 아니라 죄악이다." The Karios Document: Challenge to the Church. A Theological Comment on the Political Crisis in South Africa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1986), article 3.1. 화해의 추구가 정의에 대한 추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화해는 마치 그곳에 죄악이 없는 것처럼 여기자는 것인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화해가 아니다. 이러한 화해는 억압가운데 있는 사람, 불공정함(injustice) 속에 있는 사람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만약 정의 없는 화해가 있을 수 없고, 또 정의가 이루어진 후 화해에 대한 시도도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화해를 이룰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것과 관련하여 해결의 한 실마리를 우리에게 제공한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수많은 가해자들의 조작과 고문과 폭력으로 인해 희생자로서 깊은 상처와 고통을 안고 죽어가는 자리이지만, 동시에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쌍방적인 그런 화해를 꿈꾸며 죽어 가신 거룩한 자리이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쓰러진 고통의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가해자에 대하여 분노와 적개심으로 가득 차 폭력으로 대응하며 앙갚음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 자신을 이러한 십자가의 형틀로 내몰게 한 모든 가해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무한한 사랑과 용서로 완전한 화해의 다리를 놓을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바울은 말한다. "십자가에서의 희생을 통하여 주님은 둘로 하나로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마침내 그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다"(엡 2:14-16) 예수께서는 서로 반목하며 원수처럼 여기며 복수의 칼을 갈며 상대방의 가슴에 그 칼을 겨누고자 소비적으로 생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 사이의 진정한 화해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용서와 화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가르쳐 준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보복이라는 사슬을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해자 때문에 주어진 상처와 고통으로 주어진 한을 복수로 앙갚음하며 생을 소비하는 것 대신에 그를 진심으로 용

서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가해자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때만이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일그러진 양자관계가 회복된다. 양자 사이에 단단하게 서 있는 벽을 허물어 화해의 다리를 놓는 일에 그 자신의 생을 불사르는 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고자 희생하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길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을 포용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포용하려는 하나님의 의지의 절정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에 보내 주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내어 주셨다(롬5:8).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의 행위 혹은 정의의 실행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은 선악의 기준을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서로를 포용하려는 의지 없이는 갈등이 종식될 수 없다. 그렇다고 이것이 상대방이 죄없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의의 실행을 배제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들이셨지만 우리가 죄없다라고 하시지 않으셨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하거나 화해해서는 안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면에서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용서와 화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제 3의 길을 제시한다. 만약 우리에게 서로를 받아들이려는 의지가 없다면, 이 땅에 갈등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화해는 한편으로는 용서와 그리고 다른 한 편으로는 참회와 연결되어져 있다. 용서와 회개없이 화해가 있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의 사역도 참회와 용서 위에서 이루어졌듯이 우리가 지향하는 화해도 용서와 참회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 심리학자 토머스 사스는 "바보는 용서하지도 잊지도 않고, 순진한 사람은 용서하고 잊어버리며, 현자는 용서하면서 잊지 않는다"고 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용서는 피해자측의 몫이고 기억은 가해자측의 일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화해를 요청하면서 기억이 부인되거나 기억을 되풀이하면서도 용서를 유예한다면 참된 화해란 불가능하다. 화해란 가해자의 진심어린 고백과 피해자의 깊은 용서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발생한다. 따라서 진실한 고백과 사랑에 기초한 깊은 용서 없이는 양자간의 그 어떤 화해도 있을 수 없다. 지금까지 시도되어진 화해에 대한 노력들은 이러한 양자간에 상호작용에 대해 간과한 듯이 보여진다. 카이로스 문서가 지적하듯이 피해자의 아픔과 상처에 대한 깊은 이해가 배제된 가해자 중심의 화해의 논리로는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 없다.

오늘날 세계는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 속에 있다. 이제는 그 갈등과 반목의 사슬을 끊을 때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질곡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용서와 화해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 시대에 용서와 평화의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써 사람들이 서로 보복하지 않고 용서와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 용서 없이 화해가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는 이땅에 화해자로 오셨다.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할 것을 가르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윤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용서가 피해자의 몫이라면, 기억하는 것은 가해자의 몫이다. 이 기억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과 다시는 동일한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포함한다. 2차 대전 이후에 홀로코스트의 문제가 유대인 뿐만 아니라 독일의 교회에 의해서도 끊임없이 기억되어 왔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교회는 끊임없이 우리 사회를 향해서 참회와 용서를 외쳐야 한다고 생각한다.